

재활 차질에 포지션 중복 '불안한 내야'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일본 스프링캠프 중인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가 지난 15일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열린 자체 훈련에서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범호 영입에 김상현 외야로 자리옮겨 훈련

안치홍 시즌 초반 합류 불투명… 박기남만 정상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가 종반으로 향해면서 2011시즌 청사진도 구체화되고 있다.

KIA는 16일 신인 투수 박기철과 2년차 좌완 임기준을 귀국시켰다. 마운드가 빠른 속도로 윤곽을 잡아가면서 연습경기 출전기회가 적은 두 투수를 잔류군으로 보내 경기를 통해 실전감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내야는 예측불허다. 선수들의 공백과 포지션 중복으로 내야는 이번 스프링 캠프의 최대 약점지대가 됐다.

지난해 KIA는 1루수 최희섭을 필두로 김선빈·안치홍·'꼬꼬마 키스톤'이 맹활약하며 내야를 구성했다. 무릎 수술로 잠시 자리를 비워었던 김상현 그리고 이현곤·박기남도 내야의 주요 인물이었다.

하지만 올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KIA 스프링캠프에는 지난해 내야를 대표한 6명 중 박기남만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안치홍·최희섭·김선빈은 부상병이고, 김상현은 이범호 영입 여파로 외야로 자리를 옮겼다. 이현곤은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중도에 귀국, 남해에서 잔류군과 몸을 만들고 있다.

15일 열린 자체 훈련에서도 박기남 훈련으로 백팀 2루수로 출전했다. 밤복이 좋지 않은 김선빈은 지명타자로 나섰다.

KIA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선수는 안치홍이다.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시

즌 초반 합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안치홍은 지난 시즌이 끝난 후 어깨 연골과 팔 통증 수술을 받았다.

지난달 3일 따뜻한 편에서 재활훈련에 속도를 냈던 안치홍은 미야자키 캠프에서도 재활에 주력하고 있다. 수비훈련을 위해 글러브도 들었지만 배팅 훈련은 걸음마 단계다. 가볍게 티 배팅을 하고 있는 안치홍의 정상적인 프리배팅은 스프링캠프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주장 최희섭은 허리 통증으로 1주일 거량 훈련을 쉬었다. 14일 간단하게 배팅 훈련을 소화했지만 상태가 완벽치 않아 개인 훈련을 하며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지난해 주전 내야수들이 대거 자리를 비우자 흥재호와 장태성 그리고 정식선수가 된 박종석 등이 키스톤 몸비로 호흡을 맞추며 테스트를 받고 있다. 15일 훈련에서는 이영수와 최훈라이 1루수로 들어갔다.

3루는 포지션 중복이 문제다. 김상현과 김주형의 경쟁구도로 전개되던 3루에 이범호의 등장이 둘째 번수가 됐다. 포지션 구성을 놓고 고심한 조범현 감독은 김상현을 외야로 돌리는 방안을 우선 해결책으로 내밀었다.

김상현이 외야 수비 연습에 나서면서 일단 이범호·김주형의 3루 경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김상현이 외야 수비에 미숙한데다 3루수를 우선으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조범현 감독의 운영의 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wool@kwangju.co.kr



1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평가위원회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인 평창의 공식 실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평창 IOC 실사 8개 주제 월 담았나

특구 조성 올림픽 유산 남길 것 인천~양양 무료 에어 셔틀 준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IOC의 현지실사 첫날인 16일 IOC에 제출한 17개 주제 중 ▲비전·유산·소통▲ 올림픽 컨셉▲경기 및 경기장▲장애 인율림픽▲올림픽선수촌▲숙박▲수송▲환경 및 기후 등 8개 주제에 대해 첫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발표자로는 강광배 국제봅슬레이연맹(FIBT) 부회장과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소희 등 선수 출신 외에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 성민정 중앙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섰다.

다음은 첫 프레젠테이션에서 평창유치위가 강조한 8개 주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비전·유산·소통=평창의 비전인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은 아시아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겨울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다.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아시아 동계스포츠 발전과 올림픽정신을 확산시키겠다. 앞선 두 번의 유치 활동을 통해 경기장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 평창은 동계올림픽 특구를 조성해 올림픽 유산을 남기겠다.

◇올림픽 컨셉=평창은 모든 경기장에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선수 중심의 편리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설상 중심의 알펜시아 클러스터와 빙상 중심의 강릉 클러스터의 거리는 31km로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 등 다중 교통망을 이용해 2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

◇환경 및 기후=평창은 동계올림픽에 적합한 기온과 최적의 설치를 보유하고 있다. 2월 평균기온은 -4.0도이고 평균 적설량은 37.1cm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경기장과 수송체계를 마련했다.

◇경기 및 경기장(강광배 FIBT 부회장)=참가 선수의 90%는 선수촌에서 10분 이내에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다. 동계올림픽을 치를 13개 경기장 중 7개

/연합뉴스

스마트폰에 끝빠진 호랑이들

휴식시간이면 가족과 문자·영상통화

외로움 달래며 고난의 훈련 견뎌 내



'스프링캠프의 필수품은?'

프로야구 선수들은 원정경기와 캠프 훈련 등으로 1년에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보낸다. 스프링캠프 기간에는 두 달 가량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만큼 선수들은 잊지 않고 국제전화카드를 챙겼다.

휴식시간 공중 전화를 붙잡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은 스프링캠프의 일상적인 풍경 중 하나였다.

하지만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중전화의 추억도 옛 이야기가 됐다. 2000년대 들어 선수들에게 노트북은 캠프 필수 준비물이 됐다. 노트북을 통해 식구들과 화상 채팅을 즐기는 선수들은 스마트폰의 필수 다운로드 항목이다. 무전기 어플도 인기다. 스마트

팅을 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며 힘든 훈련을 견뎌냈다. 덩달아 인터넷 전화도 등장했다. 지난해 안치홍·박기남이 인터넷 전화를 준비해오면서 두 선수의 방은 '연락사무소'가 되기도 했다.

올해 또 한번 캠프 풍경에 변화가 일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노트북 만큼이나 핸드폰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스프링캠프를 위해 부랴부랴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비행기에 오른 선수도 있다.

무료 영상 통화 어플과 무료 문자 채팅 어플은 선수단 스마트폰의 필수 다운로드 항목이다. 무전기 어플도 인기다. 스마트

폰으로 선수들은 손쉽게 영상통화와 채팅을 즐기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고 있다. 스프링캠프 취재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해외에서도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데이터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로밍 상품이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채팅을 하는 취재진의 모습도 눈에 띈다.

하지만 현지의 IT 인프라 사정은 선수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캠프가 꾸려진 휴가는 한적한 시골 도시로 선수단 숙소 근처 외에는 무선이 잡히지 않는다. 훈련이 진행되는 오쿠라가하마 구

장에서도 무선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사용 가능한 속도 인터넷도 속도가 느린데다 회선도 적어 사용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저녁시간에는 인터넷 대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은 IT 강국이다. 세상 참 좋아졌다'가 달라진 스프링캠프 풍속도를 보는 선수들의 반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금당 공인중개사

■ 김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주거지 2160평 공시지가 5억 매도 3억 청
- 회정동 소분서 부근 4차선도로 342평 공시지가 매도 9억
- 신안동 상가지 310㎡(944㎡) 공시가 19억 청 매도 2억 청
- 동구 64선 도로와 4차선도로 코너 상가지 589평 건평은 637평 공시지가 27억 3천 매도 23억
- 북구청 부근 대지 207 4층 420 평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
- 대인동 대지 149 4층 438 평 공시지가 6억 3천 매도 8억 청
- 송정리 금호타이어근 587평 공시지가 2억 5천 매도 2억 청
- 북구 이모트디자인 500평, 꿈의 습관동 대지 440 평 건평은 507 평 공시지가 27억 7천 매도 25천
- 월산동 주택 대지 47 4층 3개 공시지가 5140만 원 매도 4100만 원
- 광주 양일동 대지 108 4층 883 평 공시지가 11억 청 매도 9억 7천
- 회순군 남면 대곡리 도로와 농간지 4782평 공중적합 감정가 5억 7천 대출 295천 매도 2억 청
- 운남동 삼성아파트 1955평 세입구 입주 대지 429평 건평은 248평 대출 15억 8천 1전한 15억 3천
- 상임동 899평 무기별 풍광 공시지가 23억 3천 매도 18억 3천
- 홍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150평 매도 145 매도 3억 청
- 홍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 114 150평 매도 145 매도 3억 청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 ▶ 서구 마륵동, 생산녹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 원대대출 능협7역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식당 창고 공장 용도D양

광산구 토지 매매

- ▶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1725평), 토지 전체면적은 15,818㎡(4,784평) 전용되어 있음, 건축률 637.46㎡(192.83평), 현재 썰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한 2,1914㎡(6,629평) 매매가 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 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 1천 5백만 원 월 740만 원(부기기자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 원, 매매가 12억 원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방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구 시청앞 LH상사광주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회암동 대지 433㎡(131평). 전. 1,199㎡(603평) 구 주택 2동, 매매가 1억 6,000만 원, 조망 경관양호.

생촌동 2차선도로 나대지

서구 생촌동 2차선도로변 나대지 513㎡(155평). 제2종단면주거지 예매가 3.3㎡당 235만 원. 카센터, 식당, 업무용빌딩 적합.

생촌동 나대지

서구 생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2,992㎡(905평) 제1종단면주거지역. 10m 진입로에 매매가 상당협의. 도시형생활주택, 종교시설, 오방원자지 일부 분할 가능.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함.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첨단 보호병원앞 자연녹지

광산구 신월동 보호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 원. 자연녹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건물매매(용봉지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 367㎡(111평). 3층. 연면적 598.8(181평) 매매가 15억. 보증금 6,000만 원 월 300만 원 균형생활시설 입점.

서광주역 뒷 자연녹지

면적 3,835㎡(1160평). 4m. 전입로. 매매가 3.3㎡당 65만 원. 현재 임야.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 보증금 : 10억원

월 세 : 4,300만원

매매가 : 73억원

☆ 보증금 : 8억원 2천